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바캉스

04 | 시선집중 - 점자의 법적 지위 보장이 가지는 의미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06 | 테마기획 - 건강을 위해 받는 안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 인터뷰 - 한국 여성 시각장애인 최초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김현아 씨

10 | 포커스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기본과정으로 제대로 배웁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등록 / 정영진(시각1급_부산광역시 동래구)

13 | 월드 리포트 - 암벽 타는 시각장애인 사진가, 저스틴 살라스
- 소리로 세상을 보는 미국인, 다니엘 키시!

14 | 뉴스앨범 - 한시련, 시각장애인 30명에게 책마루2 OCR ET 전달!
- 2016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 한시련 강원지부, 제14회 강원도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 캠프 개최
- 한시련 광주지부,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개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대한민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7월 192호

발행일 2016년 7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티 02,867,1921 캘리 모노D

태양이 내리찍는 여름이 되면 가족과 친구와 산으로 바다로 신나는 바캉스를 떠나는데요.

바캉스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1 4
2 5
3 6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ㅛ	ㅜ	ㅠ	ㅝ	ㅞ	ㅟ	ㅠ	ㅡ	ㅣ	ㅑ	ㅓ	ㅕ	ㅗ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쓰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자, 초, 쓰,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점자의 법적 지위 보장이 가지는 의미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실장)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문자인 점자에 대한 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점자의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점자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16년은 1926년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를 창제한 후 정확히 90년이 되는 해로 점자의 법적 지위 획득의 의미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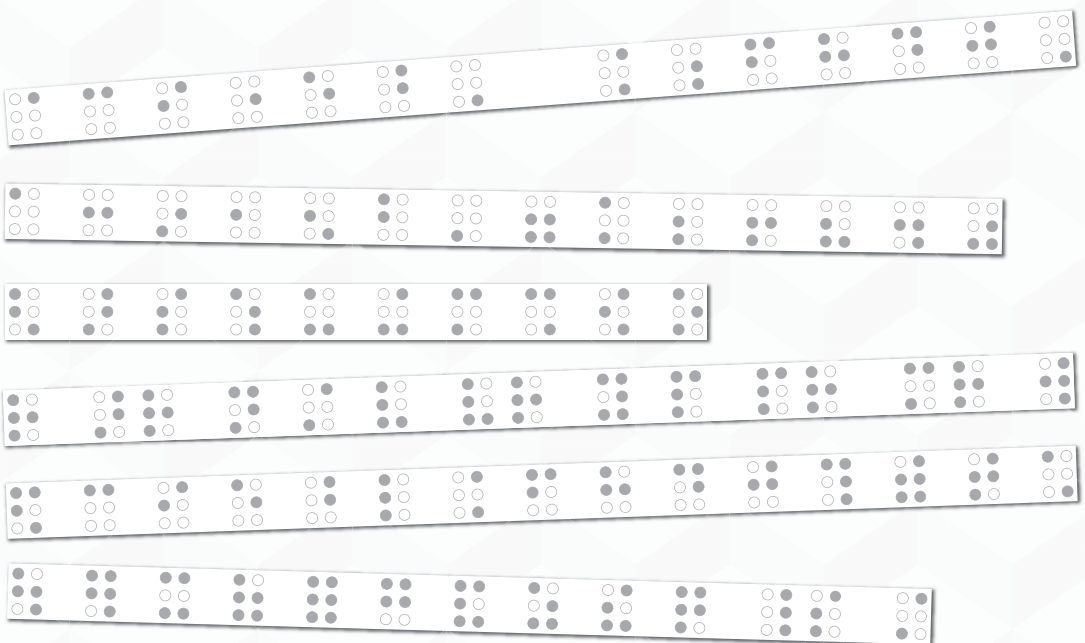
점자는 비시각장애인의 한글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고유하며 유일한 문자로서 교육, 직업, 일상생활 등 시각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점자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현행 법률에서 점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저작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주민등록법」, 「화장품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점자법(Braille Bill)이 제정되어 시각장애 학교는 물론 일반 학교의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를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점자투표제도, 점자 내용증명 우편제도, 점자 소송장 제도 등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자시민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등 발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점자법의 제정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점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애초 발의되었던 점자기본법이라는 법제가 점자법으로 변경되어 통과되었고, 당초 발의되었던 조항들이 많이 변경,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의 지위를 격상시키지 못하였고, 점자의 육성 및 발전, 보급을 위한 보다 정밀한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라 하겠다.

이번 점자법은 총 4개의 장과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구성하였고, 제2장은 점자와 관련된 계획수립, 규정제정, 제3장은 점자사용을 촉진·보급하기 위한 실체적인 방법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위 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점자법이 단순한 선언적인 법이 아니라 점자 육성 및 발전, 보급, 계승을 위한 실천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각 조항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점자에 대한 보다 확고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점자 사용자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법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발전적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을 위해 받는 안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 활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안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마는 어떤 사람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마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안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술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안마 의술은 경락의 원리에 의해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음양 균형을 고르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어혈(산화혈액, 노폐혈액)을 압박극으로 분해, 여과하여 다시 흡수 및 재생시키고 피부 호흡을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처럼 안마는 혈액의 순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안마를 계속적으로 받으면 혈액의 산성화가 예방되고 각 세포에 새로운 영양을 공급하여 활동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안마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이 취득 가능한데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이 같은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의 고유 업종인 안마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태극 마사지, 중국 마사지, 발 마사지 등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무자격 안마업자들의 영업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안마를 받는 국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마사 생존권을 보장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나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시각장애인 아닌 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마사지, 안마 등을 내용으로 간판을 내거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업소’를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연중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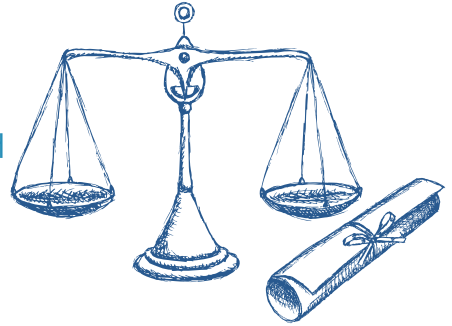
무자격 안마·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로 국민들의 건강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여성 시각장애인 최초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김현아 씨

목표를 향한 끝없는 노력으로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여성이 있습니다.

김현아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7월호에서는 김현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로스쿨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게 되셨나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법정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대학교 2학년 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죠.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초·중·고등 과정을 부산맹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맹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관심의 폭이 커져 인권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미국의 로스쿨은 수업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법률 용어에 라틴어와 불어가 섞여 한국인인 저에게는 생소했거든요. 또 학교에서는 매일 100페이지 정도의 과제가 쏟아지지만 점자로 읽고 소리로 들으며 공부하는 저는 항상 시간에 쫓겨야 했죠. 수업시간에 돌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잠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었어요. 잠이 부족할 때는 항상 다니던 길도 헤매게 되고 방향 감각이 흐려져 고생하기도 했지만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리와 전반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내 장애 학생 복지에 있어서도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개방적인 것 같아요. 인권, 특수교육, 장애 관련법과 제도 등의

역사가 오래되어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보다 생활하기에 편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입학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개별 면담을 거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정, 보완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파악해 입학 전에 조치를 취해주셨거든요. 장애학생을 위한 교내의 복지는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제 원래 전공이 특수교육이예요. 특수교육을 그만두고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가족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가족들은 특수교육을 전공해 특수교사가 되길 바랐거든요. 또 아직까지 여성 시각장애인이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없어 새로 개척해야 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가족이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한 부분은 없어요. 당분간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국 변호사들의 현 상황도 알아보고 싶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래 지내다보니 한국 변호사들의 실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큼니다.

김현아 씨처럼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저는 '꿈꿀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약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 하나만 보고 전진해 온 케이스니까요.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도전이 거듭되고 도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굉장한 성취감이 들었거든요. 세상에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결국은 좋은 날이 다가올 것이란 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 기본과정으로 제대로 배웁니다!

지하철 역, 공중 화장실, 건물 입구 등

시각장애인을 편리하게 하는 편의시설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 기본과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건축 및 사회복지 전공자, 시각장애인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관 단체 종사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교육 1일차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시각장애인 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IT 현황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교육 2일차에는 서울여성플라자의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적용된 사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교육은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및 기술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한 끼의 식사를 해보는 ‘눈 가리고 한 끼’도 진행되었는데요, 2명씩 짝을 지어 안대를 끼고 짜장면을 먹고, SNS용 영상을 촬영하며 시각장애인의 식사시간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눈 가리고 한 끼’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눈을 가리고 식사를 하며 실제 체험을 해보니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등목 정영진(시각1급_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학독서 시간에 과제로 글을 쓰게 되었다. 재제는 '등'이다. 선생님은 떠오르는 단어들을 마인드맵으로 즉석에서 유도했다. '등'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많은 말들 중에서 나는 내 어릴 적 등무의 등이 떠올랐다. 순간, 잊고 있었던 고향이 와락 안겨왔다.

기억이 고향땅으로 한달음에 달려간다. 그곳은 널따랗게 펼쳐진 장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척박한 땅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공동묘지에 있다. 주인 모를 무덤만이 등성등성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그곳은 우리 마음대로 뛰어놀기에 안성맞춤이다.

대문을 지나 앞마당으로 바람처럼 들어서면 할아버지가 계신 큰 채가 보인다. 큰 채 건너편으로 문간방을 지나 허리를 숙여 까치발로 더 걸어간다. 그곳에는 키가 내 가슴 높이께나 되는 우물이 있다. 그 옆에는 코끼리처럼 길쭉한 코와 칼같이처럼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작두펌프가 입을 찌억 벌리고 있다. 마치 덩다고 호들갑을 떨며 달려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씩 웃고 있다.

아침부터 반나절을 뛰어 다니며 잡은 메뚜기는 이제 뒷전이다. 메뚜기는 저 멀리 내팽개치고 서로 먼저 등목을 치겠다고 빨간 고무 큰 대야에 머리를 들이민다.

“우리, 가위 바위 보로 하자”

“가위, 바위, 보!”

“야호, 내가 이겼다. 내가 먼저야. 어서 물을 퍼서 등을 씻어주라.”

옷통을 벗어부치고 시멘트바닥에 엎드리자, 녀석이 내 팔을 비틀어 잡아 일으킨다. 성이 난 내 눈썹이 여덟팔자로 치켜 올라간다.

싫으면 관두라고 볼멘소리로 투정하자, 개구쟁이 등무는 마지못해 꺾죄죄한 손으로 등물을 끼얹어 주다가 저드랑이를 간질이고 물을 허리 아래까지 적신다. 나는 고향을 치며 벌떡 일어나 바가지로 물을 떠 획 뿌린다. 물세례를 받은 등무도 뒤질세라 내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빼앗으려고 덤빈다. 무기를 빼앗긴 나는 우물가를 돌며 도망 다니고 녀석은

잡으러 달려와 물을 뿌리며 한바탕 난리다.

그 때, 바깥이 소란스럽다 여기신 할아버지가 큰방 문을 열고나오며 불호령을 내리신다.

“이놈들! 날이 가물어 물이 모자라는데 물 귀한 줄 모르고 무슨 장난질이나?”

우리는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에 놀라 똥마려운 강아지마냥 고개를 꼭 수그리고 눈치를 살핀다.

“할아버지, 잘못 했어요. 그러지 않을 게요.”

살며시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들고 있던 바가지를 등 뒤로 숨기자, 할아버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신다.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만 놀고 들어가 공부하라며 곧장 방으로 들어가신다.

멍하니 서 있던 우리는 쫄딱 젖은 꼴이 우스워 서로 쳐다보면서 깔깔거린다. 우리는 이제 용감한 영웅이 되기로 한다. 젖은 옷을 다 벗어 우물결에 걸쳐 두고 발가벗은 채로 작두펌프로 간다. 나는 펌프 아가리에 한 바가지 물을 붓고 손잡이를 잡고 있던 등무는 아래위로 펌프질을 한다. 꾸룩 꾸룩... 쇠소리를 내던 코끼리 코에서 거품이 나더니 시원한 폭포수가 큰 대야 안으로 쏟아져 내린다. 누가 볼세라 퍼뜩 물을 뒤집어 쓴 우리는 철사에 걸려 있는 수건으로 몸을 훑치고 옷을 챙겨 입는다.

등목을 마치고 나면 눈을 마주치며 씩 웃던 내 등무.

평상에 걸터앉은 우리는 우물 뒤에 서 있는 나무를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제멋대로 키가 자란 나무 꼭대기, 잎 사이로 서너 개 남은 돌 복숭아가 부끄러운 듯 발강게 고개를 내민다. 아마도 천둥벌거숭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나 보다.

돌이켜보면 아련하고도 행복한, 햇살 눈부신 여름 한낮이었다. 우리의 여름은 가고 이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한다. 등살을 맞대고 앉아 '메기의 추억'을 노래하던 내 등무야! 우리 사이가 하늘 높이 날아가버린 잠자리만큼이나 멀어져버렸구나. 같은 하늘 아래 있다면 언제든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밤 나는 너와 등목 하는 꿈을 꾸고 싶다.

암벽 타는 시각장애인 사진가, 저스틴 살라스

미국의 시각장애인 저스틴 살라스(남, 22세)의 도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스틴 살라스는 여행 전문 사진가로 최근 시각장애인으로서 암벽 등반에 성공해 아웃도어 업체로부터 전문 장비를 협찬 받는 등반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살라스는 다섯 살 때부터 안경을 썼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점점 더 나빠져 14세가 되던 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라스의 친구는 살라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고 남아있는

주변시(peripheral vision, 시선의 바로 바깥쪽 범위로 주변 사물은 인지할 수 있지만 중심시보다 식별 능력이 좋지 않음)를 이용해 암벽 등반을 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살라스는 친구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면 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며 암벽을 타는 방식으로 등반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보는 미국인, 다니엘 키시!

미국의 시각장애인 다니엘 키시는 태어난지 7개월 만에 망막 모세포증으로 오른쪽 눈을 제거하고 13개월이 되었을 때 나머지 왼쪽 눈마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박쥐나 돌고래가 초음파를 쏘아 공간을 인식하는 것처럼 혀를 튕기고 그 소리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키시는 이 방법을 통해 사물의 거리는 물론 사물이 금속인지 나무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물을 인지하는 이 같은 방법은 대상과의 거리 및 성질에 따라 음파가 돌아오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가진 음파 탐지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자신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한시련, 시각장애인 30명에게 책마루2 OCR ET 전달!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는 지난 6월 14일, 책마루2 OCR ET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책마루2 OCR ET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기능 데이지 플레이어로서 독서, 음악, 문서인식, 팟캐스트 청취, 녹음 등의 기능을 음성안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입니다. 이번 전달식은 서울특별시, (주)자원메디칼과 함께한 사회공헌 협약의 일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조기기를 전달받은 시각장애인들은 “책마루2 OCR ET를 통해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책마루를 전달받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주)자원메디칼의 김용태 실장은 “시각장애인 보장구가 공적급여로 지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원메디칼이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2016년 전국 심화재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교육은 김미숙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좋은 목소리&화합하는 소통기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성윤호 행정사무관의 ‘2016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의 ‘사단법인 회계와 후원 활성화’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시련은 “이번 전국심화재활교육은 전국의 시각장애인 지도자 및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회원들의 복지증진도모,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시련 강원도지부, 제14회 강원도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 캠프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지부장 임조성)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홍천 가람리조트와 홍천군청소년수련원에서 '제14회 강원도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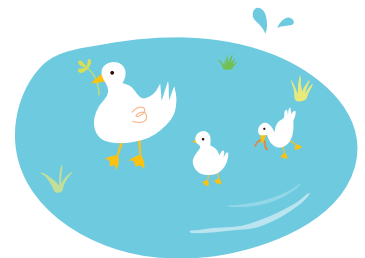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본 캠프는 힐링 운동회, 힐링 콘서트,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노승락 홍천군수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인 흰 지팡이의 의미처럼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시련 광주지부,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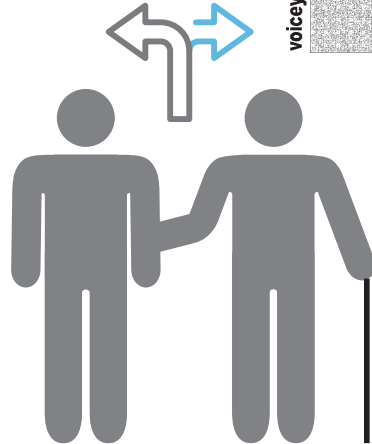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 김갑주)는 지난 6월 18일 광주 시민의 숲에서 '2016 시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함께 걸어요, 세상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각장애인과 시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는데요.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팀을 이뤄 약 2.5km의 공감코스와 5.18km 건강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함께 걷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대를 쓰고 오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흰 지팡이를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비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경험해보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난감함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경우 너무 난감해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행동보다는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처음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팔꿈치를 잡게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반보폭 뒤에서 따라 걸으며 안내자의 보폭이나 앞의 장애물 유무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 로 번 호 7608162

계 좌 번 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